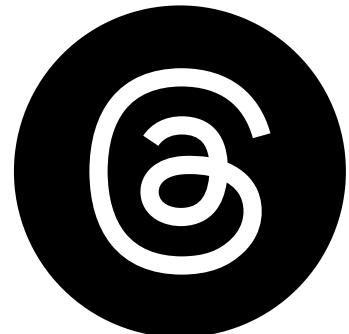


🔍 인권 서포터즈 4기

# SNS에서 지켜야 할 인권

# 01

## SNS, 정말 자유로운 공간일까?



SNS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악성 댓글, 개인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는 정신적 고통, 사회적 낙인,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 02

# 악성 댓글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고, 외모·성별·나이 등을  
.이유로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인권 침해입니다.

SNS에 작성한 댓글 한 줄은 삭제할 수 있어도,  
상대방이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과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을 지켜야 합니다.

## 03

# 개인정보와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주소, 학교, 직장 등의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신상 공개'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NS에 게시물을 올리기 전,

"이 내용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것인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은 없는가?"

를 먼저 생각해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04

##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2차 가해

SNS에서는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댓글이 쉽게 발견됩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어?"

"조심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와 같은 말은 피해자의 회복을 방해하고  
또 다른 상처를 주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부른 판단을 하기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05

## 혐오 표현은 사회적 차별을 강화합니다

특정 성별, 국적, 장애, 종교, 연령 등을 이유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혐오 표현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 전체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혐오 표현은 편견과 차별을 정당화하며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온라인 공간 역시 현실 사회의 연장선입니다.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언어는  
건강한 소통 문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 06

## 정보를 공유하기 전, 사실인지 확인하세요.

SNS에서는 자극적인 정보가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허위 사실을 공유하는 행동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 왜곡된 정보, 악의적인 소문은  
명예훼손과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기 전,  
정보의 출처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인권 서포터즈 4기

# 존중과 책임이 건강한 SNS 문화를 만듭니다.

SNS는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며,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고,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건강한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계정 팔로우하고  
일상 속 인권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세요!

@hallym\_hhrc



팔로우

저장하고 꺼내보세요

